



인문계 논술 출제 의도 및 문제해설

출제 의도

이번 수시 논술고사는 통합교과의 영역 곧 미학, 문학, 경제학, 철학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 분석력 그리고 응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발췌한 지문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의 지적 수준에 상응하며, 사전 지식 혹은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다.

주안점은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와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글을 설계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에 놓여졌다. 나아가 통합교과형의 출제 원칙에 상응하게 서로 다른 영역의 원리들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모두글에서 자율성과 타율성에 관한 사전적 지식을 미리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전에 나온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이고, 타율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하여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성질”이다. 출제 의도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학, 문학, 경제학, 철학 등의 영역에서 1) 자율성과 타율성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2) 자율성과 타율성의 원리가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3) 자율성을 구성하는 중심 범주의 하나로서 자유의 두 측면, 즉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수험생의 사고의 폭과 깊이가 측정대상이다.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에서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시문의 내용은 미적 자율성 혹은 예술의 자율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전통적으로 미 혹은 예술은 진실이나 도덕적 선과 하나로 간주되었고, 근대 초기에도 인식론과 결부되었으나, 칸트에 이르러 미 혹은 예술이 자신 바깥의 영역과 분리되었고, 이것이 예술의 자율성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논지이다.

제시문 <나>는 문화포럼인 잠수함토끼가 펴낸 『오늘의 발견』에서 발췌, 수정하였다. 제시문은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출판과 관련된 검찰의 음란죄 적용과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 간의 대립을 다룬다. 문단은 문학은 오로지 문학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미적 현상으로 다루어져야 하기에 문학을 도덕과 결부시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형법상의 음란죄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에서 예술을 예술 바깥의 잣대로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에서 발췌하였다. 이 제시문은 애덤 스미



스를 예로 들며, 경제는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하고, 그럴 경우 경제는 경제 나름의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에 의해 더 잘 발전함을 주장한다. 이 제시문 역시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독일 작가 쉴러의 『간계와 사랑』의 줄거리와, 극 중의 일부를 담고 있다. 쉴러의 이 작품에는 사랑하는 연인, 페르디난트와 루이제의 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외적인 간섭과 이에 반응하는 두 인물의 태도가 나타난다. 페르디난트는 자식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버지의 간섭에 맞서고, 루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을 거부하지 못한다. 페르디난트는 자율적인 측면을, 루이제는 타율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페르디난트는 지나치게 자율적인 요소를 강조한 나머지, 자신의 뜻에 배치되는 루이제를 죽이고 자신도 죽음으로써, 자율성이 충분한 내적 기반, 예를 들면 이성적 자아 확립 등의 요소가 없을 경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에서 발췌, 수정한 것으로 자유를 두 가지 의미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며, 적극적 자유는 말 그대로 스스로 사고하고, 의지력을 발휘하는 능동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저급하고 맹목적인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자아의 순수한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제시문 (바)는 『액체근대』에 나오는 『오디세이』와 관련된 이야기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돼지로 상징되는 예측 상태에서부터 선원들을 해방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오히려 돼지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곧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 해설

<문제 1> 이 문제는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 개념을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문제의 핵심은 1) 자율성과 타율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예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어 2)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이 『즐거운 사라』를 둘러싸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약하는 것이다.

예술의 자율성은 예술을 도덕적 선이나 객관적인 진실과 관련없이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예술을 “형식”, “상상력”, “천재”의 산물로 간주하고, 예술에서 사실적 판단이 아닌 취미 판단을 더 중시한다. 반면 예술을 도덕이나 종교 혹은 철학과 관련짓는 것은 예술에서 타율성을 중시하는 예가 된다.

예술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타율성을 강조하느냐와 같은 입장의 차이는 때때로 예술가에 대한 사법적 처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즐거운 사라』라는 작품을 둘러싼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예술을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술도 사회적 도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문제 2> 이 문제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찾아서 각각 비교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율성과 타율성이 예술, 경제, 문학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데에 있다.

제시문 <가>는 예술의 경우이고, 예술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타율성의 성격은 예술을 예술 바깥의 요소 즉 도덕, 종교 혹은 철학과 관련 맺는 데에서, 즉 미를 진이나 선과 결부짓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타율성은 문학을 문학 바깥의 잣대 즉 도덕 체계에 기반을 둔 형법상의 음란죄로 처벌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경제 영역에서 자율성과 타율성을 다루는데, 경제에서 타율성은 이익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방임을 억압하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에서 타율성은 페르디난트와 루이제의 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간섭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성은 스스로의 원칙에 의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율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바깥에서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성질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제 3> 이 문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제시문 <마>에 나타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의미와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두 개념을 적용해 제시문 <라>의 페르디난트와 제시문 <바>의 엘페노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페르디난트와 엘페노르가 드러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페르디난트와 마법에 의해 우리에게 갇힌 돼지의 처지가 된 엘페노르는 (마)에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페르디난트는 박탈당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 반해, 엘페노르는 선택의 고통에서 벗어난 예속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엘페노르의 문제는 소극적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페르디난트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지만 그 자유가 결국은 연인인 루이제와 자신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드러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의 회피와 자유의 남용이라는 양극단을 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제시문 (마)에서 말한 적극적 자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활용하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